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2장 1-13절

날짜: 6월 7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창세기 41장 말미를 보면, 온 지면에 심한 기근이 들어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의 요셉에게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미리 비축해 둔 덕분에 온 세상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 가문 역시 이 무서운 대기근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야곱은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겉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참혹한 대기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기근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아이처럼 평안해하지만, 현대인들은 돈이 많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참된 만족을 누리질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질적인 만족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모른 체하며 "너희는 정탐꾼들이다"라고 엄하게 꾸짖고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냉정함은 보복이 아니라,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요셉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것처럼, 형들 역시 3일간 갇혀 지내며 12년 전 아우를 팔아넘기고 그 괴로

움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깊은 죄악을 눈물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곁에서 이 고백을 생생히 들으며 밀려오는 슬픔과 감격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육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이 철저히 회개하기를 기다린 요셉의 온전한 인격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완벽하게 예표한 인물은 없습니다. 친형제들에게 은20에 팔려 고난을 당한 후 총리가 되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요셉의 삶은, 유대인에게 배척당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후 부활하셔서 '이방인의 교회'를 탄생시키신 예수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었듯, 세상의 모든 영적 기근은 참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굴복할 때만 비로소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역사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무서운 영적 착각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해서 천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선악과를 먹은 '옛 자아'가 서슬 퍼렇게 살아나 자기 힘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율법주의 노릇을 하는 사탄의 체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2,000년 전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실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되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모든 인위적인 행위는,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

원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대적 행위가 됩니다.

야곱은 압박강 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도, 막상 형 에서를 만날 때는 덜 사랑하는 여종들과 아내들을 앞세우는 인간적인 잔꾀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독교인이 은혜의 경험을 자랑하지만, 삶의 인격은 여전히 옛 자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경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화'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고난 속에서 옛 자아가 철저히 죽은 요셉에게서는 인간적인 죄나 육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혜와 다스림,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인격만 흘러나올 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영적으로 요셉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감정과 환경, 그리고 처지를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인격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메마른 기근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서 발버둥 치는 삶을 멈추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완성된 복음을 참 양식으로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매 순간 나 자신을 죽음으로 넘길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지혜가 우리 삶의 통로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날마다 참 양식되신 예수를 먹음으로 영적 기근을 물리치고, 요셉처럼 세상을 살려내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ermon of the Week:



Starving in Plentiful Times: Finding Our True Bread in a Spiritual Famine

Passage: Genesis 42: 1-13 (ESV)

Date: June 7, 2026

Pastor: Dong Suk Chung

We live in an era of unprecedented comfort. We have access to instant information, fine dining, financial resources, and endless entertainment. Yet, beneath the surface of our modern lifestyle lies a quiet, pervasive epidemic: chronic discontentment. We look at our careers, our possessions, and even our relationships, and we find ourselves asking, "Why am I still not satisfied?"

Pastor Chung addresses this exact condition in today's sermon. Genesis 42 notes that ancient Egypt and Canaan were struck by a famine so severe that it crippled the known world. Today, we are living through a massive spiritual famine. As the prophet Amos warned, the most dangerous famine is not a lack of physical bread, but a famine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Amos 8:11].

When worldly wealth fails to satisfy the human soul, the command from an ancient famine still echoes loud and clear for us today: "Go to Joseph."

No Old Testament figure mirrors Jesus Christ more beautifully than Joseph. Betrayed by his brothers for pieces of silver, cast into a pit, and forgotten in an Egyptian dungeon, the suffering that Joseph endured prepared the way for his rise to power. Once on the throne, he became a savior to his family and the wider world alike, opening the storehouses of grain to feed a starving population.

This is the exact blueprint of the

Gospel: Jesus was sold for silver, suffered on the cross, and was raised to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He is the Living Bread who sacrificed Himself so that a starving world could eat and live forever.

Pastor Chung pointed out a profound spiritual reality in the text: when Joseph's brothers bowed before the Egyptian throne, they had absolutely no idea that the powerful ruler standing before them was the very brother they had sold years ago. In the same way, the world—and particularly the nation of Israel—is often blind to the true identity of Jesus. But a day is coming when their eyes will be opened, and they will recognize their Messiah.

The most challenging portion of Pastor Chung's message focused on how we, as Christians, attempt to solve our spiritual hunger. Many well-meaning believers think the Christian life means: "Jesus died for my sins, so now I must work as hard as I can to live a good, holy life to please Him."

Pastor Chung reminded us that this is a subtle, dangerous trap. If your "old self," driven by your own ego, is still trying to live the Christian life, you will constantly face spiritual exhaustion and zero satisfaction. True faith does not say, "Jesus died **instead** of me so I can live how I want." True faith says, "I died **with** Jesus on that cross."

When we realize that our anxious, control-obsessed egos were crucified with Christ, we can finally drop the heavy burden of trying to fix our lives by our own strength. Instead, we let the Living Bread fill us. True satisfaction—the opposite of famine—only happens when we get out of the driver's seat so that Jesus can live His life through us.

Finally, the sermon highlighted

Joseph's incredible character. When Joseph saw his brothers, he did not react with volatile human emotions or jump up to embrace them immediately. Because his old self had died through years of imprisonment, he acted with divine restraint and wisdom. He put them in prison for three days not to get revenge, but to give them space to truly repent of their past cruelty.

Pastor Chung noted that in our modern culture, many Christians are obsessed with chasing miraculous experiences, testimonies, or emotional highs. God does not want your spectacular stories; He wants your character to be transformed into Christ's. He talks about people who share a lot about their experiences but their character remains unchanged, year after year. That is not what is important and can lead to spiritual deception. Experiences to share as stories are temporary, but a transformed character endures.

Are you currently living in a personal famine? Is there friction in your relationships, anxiety in your workplace, or a deep restlessness in your heart? Worldly solutions will not fix your problems. Your soul cannot be satisfied by physical bread. Step into the presence of Jesus, surrender your old ways of thinking, and eat deeply of the True Bread of Life.

May we stop trying to satisfy our spiritual hunger using the temporary things of this world. Let us refuse to starve on these illusions and instead, feast on the Living Bread of His Word so that His character and peace will overflow from our lives. Amen.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